

緊急診斷

## 內需市場 開放에 대한 概觀

A General Perspective Against Opening of the  
Domestic Market for Heavy Electric Equipment

朴 敬 燮

曉星 ABB 社長

六共和國의 탄생을 앞두고 萬年 貿易赤字國에서 黑字國으로 전환됨에 따라 흑자 원년이나 선진국 진입이니 하는 들뜬 경기분위기는 당시 '88 서울 올림픽의 成功의인 개최를 앞두고 다소 흥분 및 의식적으로 강조하였던 당국의 立場이나 意圖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되는 대만이나 특히 일본의 엄청난 對外 貿易黑字에 비교하면 과연 우리의 40~50억불 규모의 貿易黑字를 그만큼 떠들썩하게 내세울 것은 못 낫다고 생각된다.

급기야 이런 분위기는 美國을 크게 자극하여 韓國을 제 2의 日本視하는 愚를 범하였지 않았는가. 反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사실상 우리 重電機뿐 아니라 全產業 및 심지어는 農産物에 이르기까지 전면 수입개방이라는 壓力을 받게 된 國家全產業界의 분위기에서 우리 重電機業界도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고 더구나 취약하기만한 國內市場에서의 일원화 정책은 거론조차 할 수 없는 흐름에 놓였다고 생각된다. 드디어 이는 內需市場 完全

開放에 이르게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重電機 業界는 이제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無防備狀態로 손 들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深思熟考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農産物의 경우 “자봉” 문제같은 問題를 누가 예상한 적이 있었으며, 豫測한 자 과연 있었겠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果物이나 담배 등은 각층의 기호물로서 그 피해는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다. 사먹지 않고 사피우지 않을 수도 있을테니까... 그러나 우리의 淺淺한 産業施設이, 멀리는 그만두고 최근 불과 25~30년에 이룩되었으며 즉, 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소위 外貨不足으로 부득이 하였다고는 하나 세계 각국의 無規格品도 무선별, 무선택적으로 들어 왔다.

따라서 電氣機器의 경우에도 전압 분류상으로만 보아도 IEC, ANCI 등 기타 규격외의 製品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線 電氣人들의 실무수행에 곤혹스러움이 많았다

고 본다.

한편 우리들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自己卑下性(?) 때문인지 輸入設備가 고장나면 대부분의 經營層도 관대한 반면, 國產機械類가 어떤 이유로든 고장나면 그 설비공정 責任者의 문책이 엄하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본다.

실제로 고전압기인 경우 우리의 電壓과 맞지 않는 예컨대 154kV급 機器를 수입하려던 需要者가 140kV급 (外國에는 140kV, 132kV급 등이 있으니) 製品으로 약간의 변형만시켜 試驗을 받으려 하다 試驗에 실패하여 쌍방이 被害를 본 사실이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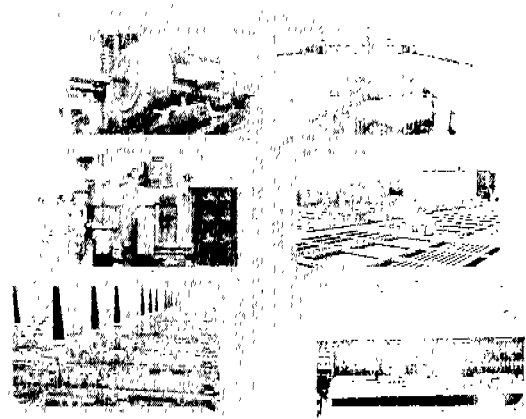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外製번호 경향이 많은 우리들에게 소비재가 아닌 시설재인 電氣機器를 아무런 確認試驗도 없이 마구 수입해도 좋은가를 此際에 깊이 음미하여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家庭用品에 있어서도 國產에 대해서는 品質 및 특히 安全性을 고려하여 工振廳에서 가혹하리만큼 감시와 관리지도를 하는데, 電氣機器에 대하여 “外製”라면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자주 火災가 나면 原因이 애매하면 으레히 電氣漏電으로 매스컴을 타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앞으로, 이미 美國에서 수입된 果物인 자몽같은 유사한 문제가 電氣製品에는 없겠는가. 事前點檢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韓國에도 이제는 훌륭한 설비와 일선월보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電氣人들이 많이 있으니 이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도 自救策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도록 제언하고 싶다.

따라서 結論의으로 제언코자 하는 바는,

1) 低電壓機器(주로 가전제품)은 工振廳에서 輸入前에 엄격한 시험을 통하여 안정성 확인을 거쳐서 輸入品이라도 ㉠자 표시를 의무화



시키고,

2) 高壓, 즉 산업용 설비는 KERI에서 반드시 Type Test를 거쳐서 不實한 外製 전기기기의 수입을 예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KERI의 技術向上과 外國技術의 정보입수와 수준 파악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나아가 이는 電氣界의 체제정비와 電氣設備 需災家에 도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電氣人들의 집약된 努力과 더불어 國內 Maker에 관계하는 電氣人들은 더욱 분발, 品質向上과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자극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으리라 믿으며, 모처럼 KERI같은 훌륭한 設備의 活用을 가일층 드높여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감히 제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産業水準이 실상 이상으로 過大評價 받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들 스스로가 강구하지 않으면 이제 겨우 싹트기 시작한 전기공업계가 난장판이 됨으로써 스스로의 설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細心한 당국의 배려와 對備策을 지금부터라도 事前 輸入檢査를 제도화하여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生懸하는 바이다.